

땅과 미녀 뺏기 위한 사촌간 위협천만 '주사위 게임'

아시아 문화 (27)
원류를 찾아서
3부 인도편

㉔ 바라따 왕족의 형제들

카주라호 = 임동률 기자 exian@kwangju.co.kr

“시위를 당겨 화살과 과녁을 꿰뚫는 자가 내 딸을 차지하게 될 것이오.”

판찰라(Panchala) 왕국의 드루빠다(Drupada) 왕은 공주 드라우빠다(Draupadi)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 '굉장한 힘'을 가진 전사를 원했다. 왕이 딸의 신랑감을 고르기 위해 시험용으로 제시한 활은 매우 단단해 시위를 당기는 것조차 불가능한 강궁(強弓)이었다.

소문을 들은 주변 나라의 왕과 전사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절세미녀로 알려진 드라우빠다를 차지하기 위해 활을 들었지만 시위조차 당기지 못했다. 판다바(Pandava) 형제 다섯 가운데 둘째인 아르주나(Arjuna)는 아무도 활을 쏠 수 없을 무렵,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는 눈 깜짝할 새 활에 줄을 걸고 시위를 당겨 과녁을 꿰뚫었다.

드라우빠다는 곧 아르주나의 차지가 됐다. 다섯 형제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어머니 쿤티(Kunti)에게 알렸다.

아르주나는 쿤티에게 '내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모를 것이라며 추측해 보라'고 외쳤다. 일이 바뀐 쿤티는 둘러보지도 않은 채 '형제들끼리 무엇이든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다섯 형제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드라우빠다를 모두의 부인으로 맞이했다.

이 무렵 판다바 형제에게 절세미녀를 빼앗긴 것에 심사가 뒤뜰린 이

판다바 집안의 맞수 까우라바

시기·질투로 술수에 빠뜨려

노예로 전락한 판다바 형제들

13년 유배생활 뒤 전쟁 일으켜

가 있었다. 하스띠나푸라(Hastinapura) 왕국의 왕인 사촌형제 두르다나(Duryodhana)였다. 판다바 집안의 맞수였던 까우라바(Kaurava) 집안의 첫째 두르다나는 삼촌 사꾸니(Shakuni)와 작전을 짜고, 드라우빠다는 물론 판다바 형제의 땅까지 빼앗으려는 계략을 꾸렸다. 사꾸니는 판다바 형제의 첫째인 유디스티라(Yudhishthira)에게 주사위 놀이를 제안한다. 당시 힌두교 카스트제도의 8사프리아(무사) 계급은 도전을 받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유디스티라는 두르다나와 가까이 주사위 놀이에 응한다.

유디스티라는 사촌의 음모를 짐작했지만 도전을 거부할 순 없었다. 주사위가 굴러가자 두르다나는 내기를 건다. 유디스티라는 처음에 자신의 목걸이를 걸었다. 하지만 속임수를 쓴 주사위 탓에 연속으로 내기에 지고 만다. 계속된 내기에 점차 많은 것을 내걸었던 유디스티라는 결국 자신과 형제가 다스리던 인드라푸라스타(Indraprastha) 왕국의 땅마저 잃고 말았다. 분노에 찬 유디스티라는 동생 4명을 내기에 걸었다. 패하면 노예로 전락해야만 했다. 주사위는 조작된 것처럼 항상 사꾸니의 편이었다. 동생 4명을 잃은 그는 자신마저 내기에 걸었고, 부인 드라우빠다까지 내기의 제물로 바쳐졌다.

까우라바 형제들은 환호 속에 패배자들을 자신들의 궁전으로 불렀다. 두르다나의 동생 두샤사나(Dushasana)는 계획했던 대로 드라우빠다를 불러냈다. 모욕을 주기 위해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고개를 돌린 채 속수무책이었던 판다바 형제를 도운 이는 비슈누(Vishnu)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Krishna)였다. 궁 안의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크리슈나는 옷이 벗겨질 때마다 환없이 그녀의 몸에 사리(인도 여성의 전통의복)를 덮었다. 끝도 없이 나오는 옷에 까우라바 형제는 계속해서 옷을 당겼지만 드라우빠다는 여전히 옷을 입은 채였다.

판다바 형제들은 굴욕을 참지 못했다. 셋째 비마(Bhima)는 '반드시 나중에 두샤사나를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드라우빠다는 '두샤사나의 피로 머리를 감겠다'고 형제들에게 서약했다.

모든 것을 빼앗긴 판다바 형제는 13년 동안 숲으로 유배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13년 뒤 두 형제 집안은 전쟁을 일으키고, 까우라바 형제는 전멸을 당한다.



인도 중부 카주라호에 있는 칫뜨라굽따(Chitrugupta) 사원 전경. 이 사원에는 태양신 '수르야'(Surya)가 모셔져 있는데 판다바(Pandava) 형제의 어머니인 쿤티는 이 신에게 빌어 아들을 얻었다. /인도 카주라호=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세계 최장편 대서사시 인도 '마하바라따'

바라따 왕족 전쟁사...개인·사회·철학 집대성 캐머런 감독 "마하바라따 영화화, 필생의 꿈"

“이 세상 모든 것은 마하바라따(Mahabharata)에 있나니, 마하바라따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도다.”

‘라마야나’와 더불어 인도 문명의 두 기둥 중 하나인 마하바라따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로 통한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합한 길이의 8배에 달하는 세계 최장편 서사시다.

마하바라따는 ‘바라따족의 전쟁에 관한 대설화’로 번역된다. 지은이는 비야사(Vyasa)로, 마하바라따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다. 기원전 10~14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본 줄거리는 사촌지간인 판다바 형제와 까우라바 형제들의 전쟁이다. 여기에 각 주인공들의 파란만장한 운명이 끼여든다.

하지만 이 주옥줄거리는 전체 내용의 5분의 1

에 불과하다. 두 사촌지간의 싸움을 보통 ‘다르마(Dharma·도덕적 의무)’ 전쟁이라 일컫는데, 인간의 목표와 개인, 사회, 철학 등 인류의 모든 주제가 액자식 구성(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가 담겨서 마치 그림을 넣은 액자를 보는 듯한 형식)으로 펼쳐진다.

인도 남부의 계랄라 주에서는 까따갈리(Kathakali)라 불리는 전통무연극의 주요 주제로 마하바라따의 한 토막을 삼는데, 동양의 3대 무용극 반열에 올랐다. 영화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캐머런은 “필생의 꿈이 마하바라따를 영화화하는 것”이라 했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마하바라따에 비하면 순진한 편”이라는 말을 남겼다. 애니메이션 ‘포켓몬’에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의 이름과 특성도 마하바라따에서 유래했다.



칫뜨라굽따 사원 앞에서 힌두교도가 태양을 바라보며 '만트라'(기도 주문)를 외우고 있다. /인도 카주라호=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마하바라따는 지난해 국제 최초로 산스크리트어 원역본이 출간됐다. 인도 뭄바이에서 17년간 산스크리트어를 전공한 박경숙씨가 총 20권 분량 중 1차분 5권을 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지하 1,2층 할인매장 1,2 이태리 가구 3층 단롭침대 4,5층 모던,혼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SPACE 홍스페이스

단롭침대 광주 대리점, 천연라텍스 100%
세계최초 최고 라텍스, 유기농 항균커버, 척추질환 교정, 홈페이지 참조

동구청열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1899-0240